



칭기즈칸도 말에서 떨어졌다

이 창 건

한국전력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감사

체르노빌 사고 20주년을 기해 「과학과 기술」지는 지난 4월호에서 전문가 7명의 글로 체르노빌 특집을 발행했다.

필자들은 그 원자료가 어떤 노형이고, 사고가 왜 일어났으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그리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논했다.

오늘 나는 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평가해봄으로써 동료들에겐 참고가 되고 스스로에게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보려는 것이다.

체르노빌 참사는 소련의 군사력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일어났다. 그때 북극곰이 가진 핵무기와 미사일은 세계 최대·최강이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그의 팔뚝에 붙은 근육의 힘을 당해 낼 자가 없었다.

크렘린은 사회주의 진영의 올림픽 참가를 보이듯하게 만들 만큼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반대로 '88 서울 올림픽' 주최를 훼방키 위해 테러 공격을 일삼는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해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막을 힘도 가지고 있었다. 초강대국으로서의 우월적인 위치에서 누구

의 간섭이나 평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기 식대로 일을 처리해 가는 동안 언제인지도 모르게 내면에 싹튼 지나친 자만심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TMI 사고는 '미국 아저씨(Uncle Sam)'의 힘이 세계 도처에 뻗어갈 때에 발생했다. 달러화의 위력, 외교력, 기술력, 학술 논문과 노벨 수상자 수, 기타 많은 분야에서 마치 옛 몽고 제국의 전성기를 방불케 할만큼의 힘을 과시하던 시절에 일어난 것이다.

미국 표준이 세계 기준이고 미국이 기침하면 약소국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위기에서 TMI 소식을 들었다.

지난날 영국에서의 핵시설 사고들과 몇 차례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두 나라의 상품과 서비스 및 국제 금융계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남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던 시점에 사고를 경험한 것이다.

등산 사고는 땀 흘리며 힘들게 올라가는 때보다는 정상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보며 정복감에 젖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원자력 중사자들이야말로 대자연의 힘에 경외심을 가지고 절대 복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항상 원칙에 충실하고 스스로를 깨우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정상을 밟았다는 성취감으로 말미암아 긴장이 풀리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여기에서 등산 사고를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 20기의 우리 발전로의 이용률이 세계 최고치(95.5%)를 달성했고, 더욱이 지난 5년 연속 90% 이상의 이용률을 자랑하게 된 것이 염려스러워 그러는 것이다.

마치 히말라야 연봉(連峰)을 연이어 정봉했을 때에 지니기 쉬운 자신감과 자기 만족 같은 기분에 휩싸여 행여나 마음가짐이 해이해질까 걱정스러워 하는 말이다.

꽃다발 든 천사가 칭찬하고 박수 치며 다가오는 동안 악마가 밑으로 소리 없이 기어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말 타는 기술이라면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던 칭기즈칸은 말에서 추락한 것이 원인이 되어 몇 달 동안 시들시들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유목 민족의 우두머리가, 더구나 말 타고 세계를 제패한 몽고의 최고 사령관이 말에서 떨어지다니... 그것은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에 비유할 만한 얘기꺼리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우리 원자력계가 되새겨 봐야 할 교훈이라고 본다.

나폴레옹은 러시아군을 상대하는 무력전에선 자신이 있었으나 러시아의 자연 조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말았다. 세기적인 영웅일지라도 자연 법칙에 역행하면 어김없이 대제앙이 찾아든다는 것을 체험케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원자력 중사자들이야말로 대자연의 힘에 경외심을 가지고 절대 복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항상 원칙에 충실하고 스스로를 깨우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 해안가에 원자로가 많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중국에서 황사가 밀려오는 것처럼 만일의 경우 우리에게 입힐 피해가 염려스러워 그럴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 못지 않게 우리는 우리 문제에 더욱 신경 쓰고 그것을 한층 더 잘 챙겨야 한다. 정상에 올라 저 밑의 아랫것들을 우습게 보는 오만에 빠져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실수가 없도록 서로 복돋아 주고 각자의 행동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확립도 필요할 것이다.

세상사는 썰물 후엔 밀물이 다가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후진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훈시를 만들었다.

'승리 후에 철모의 끈을 풀지 말라' 라든지 '군 화끈을 한번 더 조여 매라'는 등의 일본 속담도 공격보다는 수성(守城)이 어렵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선현(先賢)들은 이럴 경우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글을 내렸다.

주마가편(走馬加鞭) :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이고, 일 잘하는 사람을 더 몰아치라는 교훈일 것이다.

Strike the iron while it is hot. ☸